

“수산가공 종합단지 시급”

강임준 군산시장 · 신영대 국회의원, K-뉴딜 성공 위해 국무총리 면담

강임준 군산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 K-뉴딜과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매립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전북과 군산시의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쇠퇴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낙후된 군산지역의 수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신 국회의원은 “군산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이고,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산단 국가시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등 K-뉴딜 성공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며 “112만평 규모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4.7GW급 전력을 연계할 수 있는 전력 계통망이 적기에 확충되어야 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새만금과 군산시가 K-뉴딜의 거점지역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3일 기재부를 찾아 2022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한 데 이어 국토부 철도국을 방문했다.

“고향인 군산 발전 위해 협력”

강임준 군산시장, 국토부 철도국 강희업 국장 면담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3일 기재부를 찾아 2022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한 데 이어 국토부 철도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7월 29일자 국토부 인사 발령에 따라 철도국 국장으로 전보해 온 강희업 국장과의 면담을 위한 것이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군산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기술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과 철도 안전정책관 등을 거친 철도 및 도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강 시장은 “대여역 KTX 연장 운행 및 새만금사업 등 지역 현안과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강 국장은 “고향인 군산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주거공급대책 강화... 지역 활성화 기대

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급물량 확대·주거 비용지원

익산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지속적 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 공급 정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포레나 익산 부승 626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총 1081세대가 입주한다.

내년에는 민간임대아파트 565세대를 포함해 1598세대가 예정됐다. 또 2023년에는 왕궁 대우푸르지오 674세대, 익산 힐스테이트 454세대 등 대기업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1100여 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심 숲 조성과 함께 마동공원 GS자이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 등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5300여 세대도 추진 중이다.

대규모 브랜드 신규 아파트 건설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인근 도시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익산은 총 2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609건이 접수해 평균 3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익산 외 기타지역에서 2026건을 접수해 전체 23%에 달했다.

분양 당시 평균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포레나 익산부승의 경우는 300명 이상의 외지인이 입주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활발한 지역들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급정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까지 반영하고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등 전 세대에 40% 이상을 특별 공급물량으로 분담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도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확실적인 주거공간 제공보다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커뮤니티 시설 등 숲세권 주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거복지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군산자동차 무역센터(주)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부지 19만7,824㎡에 높은 상품성과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수출 지원 기능시설 등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일 신청된 사업계획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재정, 물류분야 등 4개 분야별,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했다.

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 빠른 시일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중고차 수출·매매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성능검사, 정비 등의 시설을 집적화해 가격·품질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형 중고차 수출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2기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평생학습관은 오는 9월부터 정규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규 2기 프로그램은 오는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주 동안 45개 강좌, 4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규 2기 프로그램 강좌는 ▲쉽게 떠나는 여행영어 ▲원어민 기초영어 회화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서양음악사 ▲통기타 ▲팝아트 아크릴화 ▲아름다운 가족부르기 ▲맛있는 우리떡 만들기 등 성인 강좌 38개와 ▲스토리텔링 논리수학 ▲어린이 로봇과학 등 어린이 강좌 7개가 있다. 특히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생활상식을 다루는 ▲생활속 부동산 교실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주 화, 목요일은 직장인들도 평생학습에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야간 강좌도 운영한다.

정규 2기 수강생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강좌 신청은 군산시민과 관내 소재 직장의 재직자,



관내 학교 재학생이면 1인 2강좌까지 선착순 신청가능하고, 수강료는 3만원으로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로 실시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오는 28일 9시~18시까지는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를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접수 시 강좌별 정원의 20%까지는 장애인 수강 인원을 의무 배정한 뒤 인터넷과 방문 접수 인원을 배정 장애인에게 수강 우선권을 부여해준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군산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8월 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시 관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약 2만4,498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계좌변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감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읍면 등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집콕·홈 SNS 이벤트 실시

군산시가 타지역으로의 휴가보다 휴강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즐거로운 집콕생활 SNS 이벤트’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대응 행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타지역으로의 휴가보다는 휴강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즐거로운 집콕생활 SNS 이벤트’는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어 먹거나 홈트레이닝 하는 모습, 온택트 공연 등 집에서 하는 어떤 모습 이든 자유롭게 촬영한 후 이메일(gunsanpr@naver.com)로 전송하고 시 공식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배달의 명수 20,000원의 쿠폰을 오는 18일 선정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